

Grace

은혜 2020.2

vol.205 / February

강남중앙침례교회

CONTENTS

- p.2 담임목사 칼럼 (V. 부족함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다.)
- p.3-4 2020 신년산상축복성회
- p.5 골방에서 열방으로! / 인터뷰(이을주,김연자)
- p.6 새가족 간증(김현진) / 목장으로의 기대(최지영)
- p.7 선교편지(정대섭)
- p.8 신임 파트전도사 인터뷰(김은성,김현선,정다윗,정시현)
- p.9 고등처 겨울캠프
- p.10 화해중재원 정기총회 / 시(이정숙)
- p.11 구약개론(역대하개론7-하) / 신앙의 베이직(바울의 2차 전도여행)

목장으로의
초대





V.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성경을 펴서 4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애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족함은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예수님이 그런 부족함을 기쁨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다.

▣ 순필이와 다윗 이야기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세미한 교회 목회 당시 만난 두 가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순필이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소위 말해 '중증자폐아'이다.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초등학교 다니는 잘생긴 아이가 있다. 역시 자폐증장을 받은 아이이다. 나는 다윗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다른 아이와 악간은 다른 점을 발견하고 아이를 테스트하고 자폐증정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아이는 말보다는 울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반응을 먼저 보기 시작했고, 부모의 눈물과 아픔은 그와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을 가진 자녀가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 놀랍게도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순필이와 다윗의 부모님들이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이나 신세를 한탄하는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다. 본인들의 고백처럼, 부족함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순필이와 다윗은 이 가정을 불들어주는 낫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이 이 가정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부족함을 끌어안고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 운동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누가 뛰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 달라스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

달라스라는 도시는 미국의 바이블벨트의 가장 핵심에 있는 도시이다. 미국의 유명한 매거진들이 대부분이 포진해 있고, 유수한 신학교들이 즐비해 있다. 미국인들 교회에서 천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형교회에 속하지만 달라스에서 3~4천 명 성도를 가지고 있으면 중형교회에 속한다.

몇 해 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챤티티 투데이>에서 달라스의 교회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 잡지의



최병락 담임목사

의 글은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해주었다. 두 번째, 심한 말더듬이었다. 사람들이 들으면 조롱을 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다. 글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던 것으로 보아, 보통 사람 이하의 말주변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하다. 세 번째,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의 별명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탄의 사자'는 그 당시 간질병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를 빼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세 번씩 세 번의 의미는 간절하게 온전하게 끝까지의 의미를 포함)이나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능히 빼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주지 않으신다. 대신 다른 응답을 그에게 주신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죽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고후12:9a)"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아셨다. 그것은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한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 약함이 능력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그 약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려기에 하나님은 그 능력이 나오는 샘물을 막으실 리가 만무하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은 바로 그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익히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불렀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24시간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석연찮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9 b)"

바울은 이 악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그가 악한 것을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랑하는 수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바로 자기의 악한 그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다. 악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듯, 악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은 올라간 집값이나 새로 산 구두와 가방, 자녀들의 명문대학 입학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악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 그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감사를 외쳐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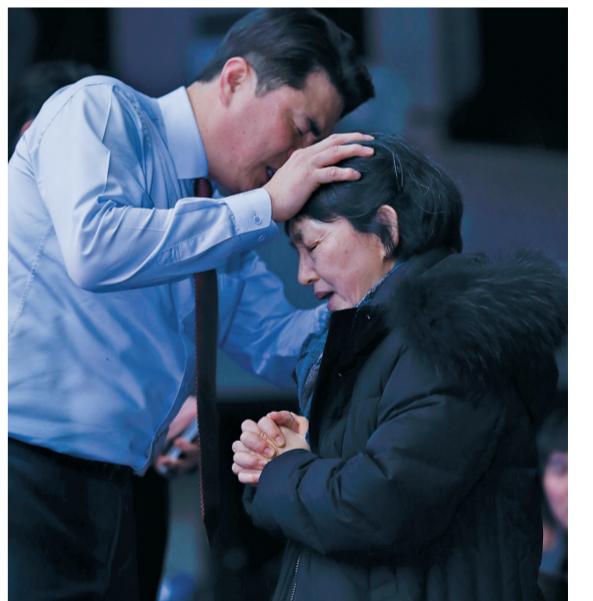
▣ 가시를 품은 사람

바울은 장점만큼 단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단점이라기보다 핸디캡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듯하다. 바울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장애가 있었음에 분명하다.

첫 번째, 안질의 병이다. 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그

최병락: 「부족함」. 두란노. 2015
3월 11일

고쳐주시는 사랑, 죽어주시는 사랑 (2020 신년산상축복성회 '사랑이 이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여 두물머리라 불리는 양수리. 말씀과 기도의 두 줄기가 하나 되어 흐르는 양수리수양관 2020년 신년 산상축복성회가 지난 1~3일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양수리수양관 신년축복성회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성도들이 찾아와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열며 응답을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에도 12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뜨거운 말씀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최병락 담임목사님이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담임으로 부임하자마자 섰던 그 자리에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신년산상축복성회는 그보다 더 뜨거웠고 감사와 간구의 목소리는 더욱 드높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상처는 열등감을 낳아서 자신도 괴롭히고 타인도 힘들게 한다. 상처가 있으면 아낌없이 마귀가 찾아와 넘어뜨리려 한다"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시며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셨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한다. 진짜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감추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면 열등감이 있을 자리가 없다"면서 "베드로를 찾아가 상처를 회복시켜주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줄 믿는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최병락 목사님 외에도 이상구 박사님(뉴스타트 대표)과 최인선 목사님(온헤드림교회)이 말씀을 전했으며, CCM 가수 나무엔(착한음악연구소장)이 친양콘서트로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성회가 진행된 3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최병락 목사님이 직접 인수기도회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편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수양관에서는 매년 겨울과 여름에 성회가 열리며, 올해 여름산상성회는 7월27~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2020 새해 양수리에서 선포된 '사랑이 이긴다'(크리스챤 연합신문)

별이 빛나는 오후의 찬양 콘서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신년찬양축복성회’의 마지막 날 오후 2시, 어쿠스틱 기타의 선율이 예루살렘 성전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찬송가 528장으로 나무엔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중저음의 포근한 음색으로 들려주는 찬양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마치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 마저 들게 하였다.

약 한시간 여에 걸쳐 찬송가, CCM, 팝송 등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였다. 중간중간 던지는 위트와 간증도 시종일관 동일한 톤으로 얘기한 나무엔은 “제가 말투가 대략 이 정도이고 노래도 소리쳐 내도 그 정도라 혹시 찬양 들으시다가 줄을이 오시면 저의 은사려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찬양기운데 계시면 된다…”

일반노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짐작해 한다면 직무유기지만 찬양하는 건 괜찮다. 얼마나 편안하면 잠이 오겠느냐.” 면서 본인의 가장 흥겨운 찬양으로 콘서트를 이어갔다. 성경의 말씀으로 곡을 만든 찬양을 들려주면서는 “경험담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 그런데 내가 위로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에는 오후에 ‘결혼예비학교’, 저녁에 ‘이혼자 치유모임’에 가서 동일한 찬양을 불렀는데 모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부터는 설불리 ‘기운내세요’ 하는 것보다는 성경말씀을 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곡을 만든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은 그런 거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언가를 믿을 필요도 소망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것이다. 오직 사랑만 남는 것이다. 그런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한다.” 며, 밥 딜런의 ‘To make you feel my love’ 와 이번 성회의 주제곡인 ‘선한 능력으로 (Von Guten Machten)’로 콘서트를 마무리하였다.

김미로운 찬양은 예루살렘 성전 강단 뒤 배경의 수많은 별과 어울여져, 마치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점자리에 누워 빙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기분이었다. 별이 빛나는 오후의 찬양 콘서트였다.

| 편집위원 최준호 |

골방에서 열방으로!



이을주 집사님. 김연자 권사님 사업장이 화재를 당해 약 50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돋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집사님과 권사님은 선교지에 보내려고 쌓아두었던 여름 옷까지 모두 타버렸다고 너무도 인터파워하시며, 화재 잣더미 속에서 타지 않은 티셔츠를 찾아내어 빨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동참하고자 남여 전도회와 교역자들이 함께 매콤한 냄새가 나는 연기 속에서 티셔츠를 찾아냈습니다. 그 수고로 만여장의 젖은 티셔츠(소방수로 인해) 나왔습니다. 찾아내고 보니 너무나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그 때!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깨끗하게 빨아서 해외 각 선교지로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나는 빨래 선교사’ 모집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리칭아웃 팀(Reaching Out Team)과 성도님들은 만여장의 티셔츠를 열 벌씩 비닐에 모아서 배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자가 먼저 섬기자고 독려하셨고 그 말씀대로 목자님들을 필두로 시작하여 온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만여장 되는 많은 분량을 모두들 자원하여 가지고 가셨습니다. 한봉지뿐만 아니라 두봉지, 세봉지를 넘어 몇 개씩을 가져가셔서 20봉, 50봉, 100봉을 빨아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닐로 신상품처럼 포장도 예쁘게 해오시기도 하고, 향수를 뿌려 오시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신실되어있고, 주의 일을 사모하시는지 정말 감탄을 하며 빨래를 받았습니다. 접수된 빨래들은 20kg 미만의 박스로 포장되어 캄보디아 박기석 선교사님, 캄보디아 이금준 선교사님, 인도 김바울 선교사님, 러시아 정용수 선교사님,



화재 현장



불속에서 건진 옷



빨래 선교사를 기다리는 빨래감들



포장되는 옷들



캄보디아 이금준 선교사님께로 가는 짐

| R 팀 (Reaching Out Team) |

이을주, 김연자 부부
인터뷰



내 삶에 불길이 덮쳐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회의 협력자가 되길



로디 10개중 4개의 창고가 다 타버렸다. 4개 중 3개는 다른 창고의 두 배 크기이니 반이 탄 생이다. 소매가로 50억, 원가로 계산해도 40억이 넘고, 창고 시설비까지 따지면 총 60억의 손해를 보았다. 타고 남은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도 수 천 만원이 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재기 불능의 상태이다.

집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창고가 있는데 화재가 났던 날은 하필이면 목요일 이었다. 목요일은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기도온 기도 모임’ 때문에 교회에 오신 날이고, 교회에서 공정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걸렸다. 목요일만 아니었어도 10분 만에 갈 수 있었고, 제일 끝 창고 화재 진입을 먼저 하기만 했어도 작은 창고 하나만 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지금부터이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을주 집사님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팔아주셨네.”라고 담담하게 말씀 하셨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 하셨을 때도 집사님은 “다 비웠으니 하나님이 채워 주실거예요.”라고 하셨다. 목사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 중 어디에서 올지 모르지만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이 모든 일이 1년 안에 복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해주셨다. 그리고 화재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옷들이 있었다. 잣더미 속에서 건진 옷이라 냄새도 심하고 검은 재도 많이 묻어 있었다. 화재가 나기 전부터 선교지에 보내자고 이야기 했던 옷인데 신기하게도 화재 속에서 그 옷들이 살아남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빨래 선교사로 선뜻 헌신해 주셔서 많은 옷들이 깨끗하게 돌아왔고 선교지에 전달되었다.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빨래선교사로 헌신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

이렇게 큰 일을 당하셨음에도 이을주 집사님과 김연자 권사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두 분은 입을 모아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고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다. 태울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다 타지 않고 남은 물건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고 하셨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었고, 에바브로디처럼 협력자가 되어 우리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신기 했던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두 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기대에 찬 두 분의 얼굴이었다. 현실은 여전히 화재 쓰레기 를 치우고 있고 중국 공장에 보내야 할 돈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분은 이미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 졌음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두 달 후 동쪽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모두가 집사님에 마지막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했고, 소방서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옆 창고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옆 창고는 화공약품 공장이었고, 24시간 전기 코드를 끊어두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되어 창문을 통해 집사님 창고로 불이 번진 것이었다.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날 같은 희망이 생긴 것이다.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아 이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

| 편집위원 최지영 |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교회에 다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2년 동안 수원중앙침례교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때까지도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기에 나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사별 후 8년 가까이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서움에 떨며 도망가던 아곱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빠져 지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특히 아곱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설교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야 깨달은 아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직접 받은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맞추어 나에게 다시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줄줄 나오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병락 담임목사님의 그 충만한 말씀의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겠다고 한 아들이 너무 고마웠고 아들만 다닐 게 아니라 너도 함께 가자며 손잡아 준 언니와 아들 친구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줄을 놓지 않고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든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 앞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은 듯했습니다. 이제껏 힘들게 버텨온 것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생각하니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 김현진 성도 |



목장으로의 기대



도했던 기억이 난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위해 같이 밥도 먹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도 가고 1박 여행도 갔었다. 그리고 시시 때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다.

2017년 이승원 집사의 막내 시온이가 태어났고, 강현숙 최은영 집사 부부, 김재총 홍윤주 집사 부부와 서희(자녀), 안장환 정미선 집사 부부와 시연(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혜정 집사님과 태양(자녀)이가 합류하면서 우리는 전부 여덟 가족 스몰일곱 명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목장으로 함께 모이며 5년간 교제했다. 얼마 전 우리는 2020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을 기대하며 우리 구역은 풍파파(마지막 파티)를 하였다. 구역장으로 섬기다는 것의 늘 바겁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구역장이라서 더 크게 더 풍족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감당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부부가 둘이 앉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지만 부부 구역 모임 덕분에 내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 수 있었고, 아내가 어렵게 털어놓은 기도제목을 남편이 들으며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구역모임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친한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 생겼고 많은 이모와 삼촌도 생겼다.

우리 모두는 첫 구역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경험했기에 목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2020 목장으로 부흥되는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로 또는 목원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자리가 어색하기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 최지영 목자 |



미스크를 나누는 정대섭 선교사



날리는 화산재



화산재에 뒤덮인 필리핀

‘사랑은 타이밍’

(필리핀 탈Taal 화산 폭발로 인한 재해 지역 선교사 긴급 후원)

필리핀에서 정대섭 선교사

필리핀에서는 지난 1월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탈(Taal)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 화산이 있는 바탕가스주(州)의 만다나스 주지사는 전화산 폭발로 발생한 이재민이 1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만명 기량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80만명 가량은 대피소 밖이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락 목사님! 정말 빠르게 방진마스크를 보내주셔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화산 폭발 수습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방진마스크였는데 가격은 폭등했고 이미 동나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중앙교회에서 재해를 당한 선교지의 필요를 아시고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선교사님들도 애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찾고 있었지만 구할 수가 없었는데 조금씩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강남중앙교회의 빠른 대처를 얘기하자 정말 멋진 교회라면 놀라워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이재민을 돋기 위해 준비하려고 나온 신학교 스텁들과 학생회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가 사역하는 Haven of Hope in Christ Baptist Church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 들이 이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N95 마스크를 받자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현재 상황은 조금씩 상태가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화산 폭발로 쌓인 화산재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는 이번 주까지 휴교하고 이제 주변이 조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은 모두 이재민들을 돋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5만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현장에 보낸 방진 마스크 & 인공눈물



마스크를 전달받는 이재민들



2020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파트전도사님들**입니다. 각 파트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전도사님들에게 네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하는 전도사님들 모두 자신의 색깔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그 톡톡 튀는 답변들을 함께 보시죠.



01. 김은성은 요리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등처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요리사다!
02.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컵에 물을 따르다가 결국 넘쳐흐르는 것처럼 저 마음의 잔을 채우고도 계속 넘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으로 제 주변을 적시지 않고는 못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03. 현재 저는 초등 1, 2부(초등 3, 4학년)를 맡고 있습니다. 두 부서를 섬기며 느끼는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들을 보면 부끄러울 때도, 도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생님들을 사용하시어 아이들을 인도하심을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역자로서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0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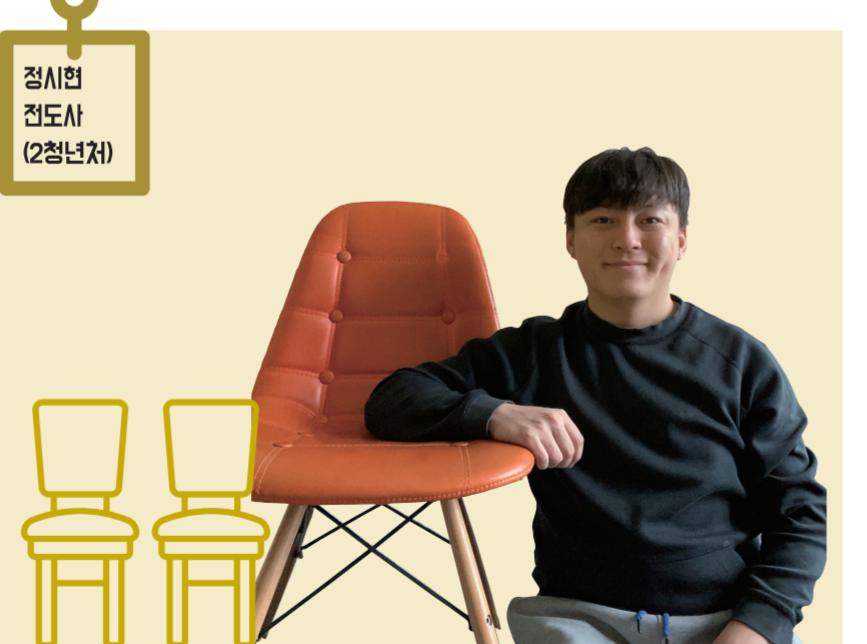
01. 다윗은 음유시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다.
02.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소년 시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어둠(세상) 가운데 있는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사람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03. 우리교회에서 제가 속한 부서는 음악파트입니다. 홍지승 목사님, 이현아 전도사님과 함께 있을 때면 웃음이 끊이질 않고, 사역함에 있어서 이렇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04.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

-시편 149편 1절 말씀-



01. 김현산은 프로젝트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전달받아 일가진 영혼들에게 선명하게 전달하자!
- 02.“많은 일들 중에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며 옳은 것을 구별해주는 전문적인 역할은 사역자뿐이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시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03. 저희 유아처 아이들은 눈높이를 맞추어 이야기 해주면 말을 잘 따라줍니다. 찬양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교시간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이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더 준비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0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마태복음 7장 24~25절 말씀-



01. 정시현은 의자이다. 힘들고 지친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02.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 대답하였습니다. 이 부르심은 저의 모든 삶 속에 점점 그리고 확실히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고, 지금도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03. 저는 현재 2청년처 파트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2청년처에서 처음 와서 느낀 것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헌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배우며 성장한다는 점도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민과 배움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헌신의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는 원칙을 깨달아 가면 좋겠습니다.
04.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6:0(육肉 대 영靈) 누가 이길 것 같은가?



고등처는 지난 11.10(금)-12(주일)까지 2박2일간 양수리수양관 앤디옥 성전에서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입시와 세상 문화에 끌려 다니며 영적인 힘을 잃고 영적 생명력까지 소진하며 살고 있는 현대를 안타까이 보고, 이번 캠프가 이들에게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길 바리며 준비하였습니다.

첫날 오프닝 예배는 차세대교육국 총괄 김영광 목사를 통해 “선한 일을 위하여”(엡 2:1-10)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둘째 날 오전에는 중등처의 이길호 전도사가 “하나님의 성(性)”이라는 주제로 이성교제와 성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집회로는 고등처를 담당하는 천상운 전도사가 사사 입다를 주인공으로 하여 “네 영혼의 처한 상태를 알라”, “성령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고등처 학생들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 공격당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간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더 이상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집회 중에는 2명의 학생이 집회 중 예수를 믿겠다며 강단으로 스스로 나왔습니다. 또한 집회 후 간증시간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나누며 특별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를 다짐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날마다 믿음의 쌓음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흥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1청년처 김유진(캠프준비팀)



김고은 간증



박시은 간증

안녕하세요!
전 이번 고등처 겨울캠프를 캠프준비팀(이하 캠팟팀) 스태프로서 참가한 이제 막 20살이 된 1청년처 김유진 학생입니다!!

저는 입시에 집중한다며 고등처 예배에 소홀한 제가 캠프를 준비한다는 게 엄지개에 느껴졌지만 하나님인 인도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할테니 기도하라”라고 감동주셔서 그때마다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번 캠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 미래가 진로가 너무 걱정되었고 그래서 가지 말라던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에 ‘하루만 늦게 갈까? 저기소개서에 뭐라도 한 줄 채워야 하는데...’라는 고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캠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당설어졌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기회로 결정하고 이번 캠프에서 ‘확실히 고 뚜렷한 미래가 보이는 것을 기도제목 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캠프는 즐겁고 재밌을 것 같았는데요. 수양관으로 출발 당시 조 편성부터 또 자기소개까지 준비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 멘붕(멘탈붕괴)의 연속이었기에 너무 힘들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프 전에 전도사님께서 “캠프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야 학생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즐거워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힘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이었는지 우리가 고생을 감내하려 하자 캠프가 수월히 진행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기도와 더불어 캠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은혜를 간구하였는데 정말로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자신감 가지고 남은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기도시간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헌신을 드릴 때, 또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처 3학년 김고은입니다. 이번 캠프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캠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이 교회를 와서 많은 캠프를 다녔고 그 데다 보니 어느새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연소한 나이지만 그 동안 제 나름의 고민과 힘들고 고난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도 했지만 오히려 저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고민들로 인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 미래가 진로가 너무 걱정되었고 그래서 가지 말라던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에 ‘하루만 늦게 갈까? 저기소개서에 뭐라도 한 줄 채워야 하는데...’라는 고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캠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당설어졌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기회로 결정하고 이번 캠프에서 ‘확실히 고 뚜렷한 미래가 보이는 것을 기도제목 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중학교 겨울캠프 때 어느 때와 같이 저녁집회와 기도회를 했는데 당시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회 중에 저에게 “시온아,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나?”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 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오신 분들이 너무 부끄웠습니다. 대부분 소리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만남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것이 주변환경에 의해, 부모님 뜻으로 교회를 나왔던 저와 달라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동안 제 삶에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왜 나를 외면하세요?’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도 동일한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봐 너무 신경쓰여서인지, 마음은 절박하지만 입 밖으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제 주위에 아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고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시은 학생은 집회 중 강단으로 나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화해중재원 제10차 정기총회 열고 2020년 사업 승인



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연계하여 교회 또는 교인 관련 사건을 위촉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화해중재원은 상담 12건과 조정 2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중재원은 직접 신청받은 사건에 대해 상담과 교섭, 협상, 조정과 회해, 중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소송 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에도 화해중재원은 법조인, 목회자 및 전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포럼, 하반기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교인들을 위한 분쟁의 발생방지 및 해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이 실시하는 총괄조절위원 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해사역을 종합하여 소식지 및 저널을 발간하고 주요 기관 및 교회, 교단 홍보세미나를 개최함으로 소송보다는 중재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오는 3월31일 12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고, 4월에 '2020년 화해중재원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구조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바 화해중재원의 발전된 사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을 제기하는 것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중앙침례 교회 피영민 2대목사는 일찍이 잘못되어가는 한국교회의 소송문화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2008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설립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화해중재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사장으로 섬겨오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최병락 담임목사에게로까지 이어져 부이사장으로 성기고 있으며, 강중침 사역총괄담당 안병국 목사도 이사로 참여하여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화해중재사역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한신함으로 한국교회를 대신해 귀한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이날 정기운영이사회를 열어 제12기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2020년도 제13기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3기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및 개인이사 신임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오준수 목사(운영위원장)의 인도로 이종호 목사(이사)가 기도하고, 최병락 목사가 로마서 3장 25-26절을 본문으로 '화목제물'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재운 장로의 인사말과 최병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에는 이영복 변호사(의장대행 부이사장)가 축사를 진행해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화해중재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길수록 이해와 양보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거나 교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사회법정으로 소송

| 크리스천연합신문 임경래 기자 cupnews@naver.com |

누구이십니까?

깊은 밤! 깊은 설움!	하늘 가득
흔들리는 달빛!	채운 그리움에
저 아득한 하늘 향해 올리는	긴 목 빼는 학두루미!
내 작은 기도손 위에 겹쳐진	
이 큰 기도손은	사랑 가득
"누구이십니까?"	먼 길 반가움에
어두움 걷하고	두 날개
환히 피어오르는 새 날!	활짝 펴는 학두루미떼!
잿빛 구름 비되어	이를 위해
가뭄에 마른 땅 적시고	빛으로 빛으로
온갖 신음	비추시는 이여!
우릿소리로 다 흘어지도록	사랑으로 사랑으로
내 연약한 기도손 위에 얹힌	오신 임이시여!
이 강한 기도손은	
"누구이십니까?"	
눈부신 햇살아래 언기슴 녹이고	
이름다운 저녁 노을에	
마음껏 마음풀어 휘젓게 하시는	
이 위로의 기도손은	
"누구이십니까?"	

이 자운 (이정숙권사)



역대하 개론7 (하) (17장)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등극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여호사밧은 나이 35세에 왕이 되었으나, 이미 성숙한 연령에 이르러 왕의 책임을 감당할 만 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 된지 4년이 지났다(왕상 22:41). 남왕국 유다는 선한 왕 여호사밧을 왕으로 갖게 되었지만, 북왕국은 악한 왕 아합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도 선해야 하지만 이웃도 선한 이웃을 만나야 한다. 여호사밧왕은 아합왕으로 인해서 대대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여호사밧의 사역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방백들과 레위인, 제사



바울의 2차 전도여행

2020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바라며, 주님의 부르심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꿈꿨던 바울의 행적을 1, 2, 3차 전도여행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호 신앙의 베이직 제목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으로 바로 잡습니다.)

안디옥에서 보고를 마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행 16:1-18장) 그런데 성령께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바울 일행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애개해 근방의 도로를 향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았고 그 요청에 응하여 바울일행은 복음을 들고 그리스 반도로 향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모두 이 전도여행에서 탄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 도왔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들어 그곳의 성도들에게 문안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에 걸쳐 장장 4,500-5,600여km의 거리를 여행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선교사적 의미가 큽니다.

여호사밧왕의 아버지는 좋은 왕 "아사"였다. 비록 통치 39년째 발병이 들어 죽었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이 온전한 왕이었다. 좋은 조상을 두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교자요, 적으로 간주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좋은 정책을 활용하였다.

여호사밧은 우선 신양적인 경건성이 탁월한 왕이었다. 먼저 그는 바일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친의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 계명을 행하였다. 그는 다윗길로 행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따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산당과 아세라 목상상을 유다에서 제하여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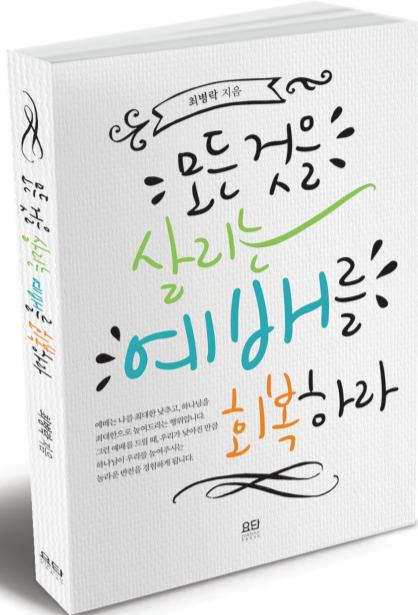
그러므로 하나님에 여호사밧에게 큰 보상을 내리셨다. 먼저 나라를 건고하게 하셨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이 여호사밧에게 기꺼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의 부귀와 영광이 국에 달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방의 열국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와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이나 아리비아 사람이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방에서도 성공하여 견고한 성과 국고성을 많이 건설하였고, 예루살렘과 견고한 성이 크게 용망한 군사들을 두어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그의 군사는 도합 116만에 달하게 되었다.

여호사밧의 사역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방백들과 레위인, 제사

라이프 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출처: 그림/설명: 성경이스프레스 (규정)

| 편집위원 최준호 |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담임목사님 최신간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출간!

2020 Rise up Oikos 설교 시리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도행전 2:42)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 1 week 왜 목장인가
- 2 week 왜 목자인가
- 3 week 왜 기도하는 목장인가
- 4 week 왜 생명을 낳는 목장인가

주일예배·수요예배·기도회					
주일	1부 예배	am	8:00	2부 예배	am 10:00
	3부 예배	pm	12:00	4부 예배	pm 2:00
	5부 예배	pm	4:00	주일 새벽예배	am 6:00
	영어 예배	pm	12:00		
수요	오전	am	10:45	저녁	pm 7:15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pm	8:30	새벽	am 5:30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달성현황표

교구	387091:59
남전도회	184486:28
여전도회 회장단	33792:07
선교위원회	125959:00
청년위원회	28677:15
교회학교	8449:05
총	총 시간 773281:21
남은 시간	226718:39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2020년 2월 2일(제205호)

발행인 | 최병락 담임목사 편집인 | 최재우 위원장 교역자 | 김요한 목사·이길호 전도사 편집위원 | 김해순·김영숙·리림·박벼리·윤유진·조유희·최영수·최준호·최지영·한혜경 사진 | 정일
 발행처 | 강남중앙침례교회 출판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 구독문의 | 02-546-3950 팩스 | 02-546-1302 이메일 | cisnotg@gmail.com
 홈페이지 | www.kjbc.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 GNA Communications 월간 비매품 ■ 은혜지는 재생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됩니다.